-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기간 : '17.6.21(수) ~ 6. 30(금), 8박 10일

○ 국가 : 터기, 그리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목 차 】

Ⅰ. 출장개요 ····· 2

Ⅱ. 방문국 소개 ····· 5

1 터 키 ····· 5

2 그리스 ····· 6

3 스위스 ····· 7

4 이태리 ····· 8

Ⅲ. 방문기관 및 주요내용 ····· 9

1 델피 박물관 등 ····· 9

2 노인요양기관 ····· 16

3 장애인복지시설 ····· 20

4 토스카나 지역문화 관광청 ····· 24

5 세계문화유산 탐방 ····· 28

Ⅳ. 총평 · 향후계획 ····· 32

Ⅴ. 출장을 마치며 ····· 35

Ⅰ 공무국외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7. 6. 21.(수) ~ 6. 30.(금), 8박 10일
○ 출장지역 : 4개국(터 키, 그리스, 스위스, 이태리)
○ 참여인원 : 13명(의원 8, 전문위원실 3, 집행부 2)

1 목 적

○ 선진유럽의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운영실태, 아동복지 운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문화유적지 보존 및 관리방안,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상품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문화관광과 복지정책 등 전반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 우수 시책 및 사례를 수집하여 도정접목 방안은 정책 제안하는 등 의원 역량강화 및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기여하고자 함

2 분야별 주요내용

복지 분야	▪ 복지정책 현황,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현황, 보육실태 ▪ 장애인고용 정책, 장애인 연금, 재활시설 운영실태 ▪ 저출산 대책, 노인 여가시설 현황 등
문화 체육 관광 분야	▪ 자연문화유산 등재, 보존 및 관리현황 ▪ 관광 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치방안, 관광코스 현황 ▪ 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 및 운영실태 ▪ 국가별 관광 홍보 정책 및 문화진흥 시책 현황

3 구성 및 분담

구 분		성 명	업 무 수 행 내 용
문화복지 위원회	1조	정정희 (위원장) 김기영 이기철 김홍열	■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사례 조사 - 관광 상품 개발, 관광코스 연계 및 자원화 - 관광객 유치방안, 관광 인프라 구축 - 국가별 관광홍보 정책 및 문화진흥 시책 등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 문화유적지 보존 및 관리방안 - 국가간 문화교류 실태 파악 - 세계 유산의 등록과 보호 실태 등
	2조	윤지상 (부위원장) 조길행 김원태 김 연	■ 다양한 복지 정책 운영실태 파악 - 장애인복지 현황, 장애인 연금 지원 실태 - 아동복지 등 다양한 복지 정책 운영상황 파악 등 ■ 노인복지 정책 운영실태 파악 - 기초연금, 어르신 일자리 지원 정책 - 어려운 어르신 돌봄 및 인권 보호 정책 -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파악 등
의 회 사무처	전문 위원	전영균	■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총괄
	직원	이효숙 강성종	■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및 자료수집
집행부	직원 2명	송기력 장은석	■ 충청남도와 선진국의 시책 비교검토 - 복지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자원 박물관 등 운영실태 비교 및 자료수집 등

4 세부 일정

일정	지역	교통편	주 요 일 정	비고
1일차 6.21(수)	인 천	KE 955 14:25	○ **의회출발(09:30),** 인천공항 출발(약 11시간 소요)	
	이스탄불 (터키)	20:15	○ 이스탄불 도착	
2일차 6.22(목)	이스탄불 아 테 네 (그리스)	전용차 TK1843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 및 관광자원화 사례 조사** - 보스포러스 해협, 소피아사원, 톱카피궁전, 블루모스크 등	
3일차 6.23(금)	아 테 네 메테오라 (그리스)	전용차	○ **공식방문 : 델피박물관 유적지 관리 시스템** - 유물보존 시스템 청취, 체험프로그램 운영상황 등	
4일차 6.24(토)	메테오라 아 테 네 (그리스)	전용차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 및 관광자원화 사례 조사** - 메테오라 수도원 방문, 국회의사당, 올림픽 스타디움	
5일차 6.25(일)	고린도 아테네 /취리히	전용차 LX1839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탐방 및 관광자원화 사례 조사** - 고린도의 고대 로마시대 유적지 탐방 등	
6일차 6.26(월)	취리히 인터라켄	전용차	○ **공식방문 : 무료 노인요양원** - 무료 노인요양기관 운영실태 - 보조금 지원 현황, 요양기관 시설 현황	
7일차 6.27(화)	로마 피렌체	전용차	○ **공식방문 : 밀라노 장애인 복지시설** - 장애인 자활 지원 및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지원 현황 - 헬스케어 연구소 운영 사황 등	
8일차 6.28(수)	로마 피렌체	전용차	○ **공식방문 : 토스카나 지역 문화 관광청** - 지역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 방안 - 지역문화 관광청의 역할 및 관광 활성화방안 - 관광객 관리 및 관광인프라 구축 방안 등	
9일차 6.29(목)	로마 (이탈리아)	전용차 KE932	○ **세계문화유산 및 관광자원화 사례 탐방** - 세계유산의 등록과 보호실태, 관광자원 활용 방안 및 유치전략 등 ○ **로마공항 출발(22:30)**	
10일차 6.30(금)	인천	KE932 16:40	○ **인천국제공항 도착(16:40), 의회 도착**	

II 방문국 소개

1 터키 일반현황

국 명	터 키(TURKEY)
위 치	아시아 대륙의 서부에 위치, 유럽 대륙의 동남부와 연결
면 적	783,562㎢
기 후	내륙지방은 대륙성 기후이며 해안지방은 해양성 기후
수 도	앙카라
인 구	80,274천명(2016.7. est. CIA 기준)
주요도시	이스탄불(Istanbul), 이즈미르(Izmir), 안탈리아(Antalya) 등
민 족	터키인, 쿠르드인(Kurd: 약 1,200~1,400만명 추정), 아랍인(50만 명), 아르메니아인(5만 명), 기타 그리스인, 유태인 등
언 어	터키어
종 교	전 국민의 98%가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정부형태	대통령제를 가미한 의원내각제
통 화	리라(TL)
1인당GDP	9,826$(IMF 2017)
환 율	1$ = 3.7리라
산업구조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은 취약(불균형)

2 그리스 일반현황

국 명	그리스공화국(Hellenic Republic : Greece)
위 치	발칸반도의 남단과 주변 도서
면 적	131,957㎢,
기 후	남부 및 도서지역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이고, 북부는 여름에 비가 많고 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는 대륙성 기후
수 도	아테네(Athens)
인 구	10,773천명(2016.7. est. CIA 기준)
주요도시	데살로니카, 라리사
민 족	인구의 97%는 그리스인, 터키인・유태인・알바니아인 등
언 어	그리스어
종 교	그리스정교가 국교로서 국민의 98%, 이슬람교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를 가미한 내각책임제의 공화제
통 화	유로화(EUR)
1인당GDP	17,806$(IMF 2017)
환 율	유로화
산업구조	전통적인 농업국(식량은 수입 의존), 해운업과 관광산업

3 스위스 일반현황

국 명	스위스(Switzerland)
위 치	북쪽으로 독일, 동쪽으로 리히텐슈타인과 오스트리아, 남쪽으로 이탈리아, 서쪽으로 프랑스와 접하고 있음
면 적	41,277㎢
기 후	남쪽은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 북쪽은 서안해양성 기후
수 도	베른
인 구	8,121천명(2016.7. est. CIA 기준)
주요도시	취리히(Zürich), 제네바(Geneva), 바젤(Basel), 로잔(Lausanne), 루체른(Luzern)
민 족	개르만족(65%), 프랑스인(18%), 이탈리아인(10%)
언 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종 교	카톨릭교, 개신교
정부형태	내각책임제의 연방공화국, 26개 캔톤(canton)이 스위스 연방 구성
통 화	스위스프랑(CHF)
1인당GDP	78,245$(IMF 2017)
환 율	1유로 = 1.2409스위스 프랑
산업구조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3분의2이상 3차산업 종사)

4 이태리 일반현황

국 명	이탈리아(ITALY)
위 치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와 접하고 있음(이태리 반도)
면 적	301,340㎢
기 후	4계절 구분 확실, 다만, 여름은 건조하고 겨울은 비교적 비가 많음(온남한 지중해성 기후)
수 도	로마
인 구	61,261천명(2016.7. est. CIA 기준)
주요도시	나폴리, 밀라노, 베네치아, 제노바, 토리노, 피렌체
민 족	이탈리아인
언 어	이탈리아어
종 교	기독교(80%), 기타(20%)
정부형태	민주공화제를 채택(내각책임제)
통 화	유로화(EUR)
1인당GDP	29,747$(IMF 2017)
환 율	유로
산업구조	북부는 농업, 면직무르 지동차, 항공기, 조선공업, 가죽제품 등

Ⅲ 방문기관 및 주요내용

1 그리스

① 델피 박물관 [6. 23(금) 방문]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 (DELPHI MUSEUM)
• 주소 Delphi, *T.K.* 33054, Delphi (Prefecture of Fokida) • 전화 +30 22650 82313 / +30 22650 82346 • 홈페이지 http://odysseus.culture.gr/h/1/eh151.jsp?obj_id=3404	
박물관 개 요	❍ 델피 박물관은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박물관으로 1896년에 발굴된 청동상과 작은 도상부터 아르카이크 시대부터 로마시대까지 시대별로 그리스의 발전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의미가 있음. - 델피는 그리스학생이면 누구나 찾아와서 체험 하는 체험학습장이기도 해 평일에도 관람인원은 많고 주말이면 관광객들도 항상 붐비고 특히, 7~8월의 휴가기간에는 음악과 고대 드라마 페스티벌까지 개최되어 델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절정을 이루고 있음 ❍ 주요 유물 - 황금머리 황소 (은판 아르카이크 시대 / The Silver Statue of a Bull) - 스핑크스 (낙소스인들의 작품 / The Sphinx of The Naxians) - 옴파로스 Omphalos, 전차를 모는 청동 마부상 Charioteer

□ 주요 질문·답변(설명)

질의1) 그리스 델피 박물관의 개요, 주요 소장된 유물 등은

설 명)

- 델피 박물관은 아폴론의 신탁의 땅 델포이의 신역에 세워진 그리스 미술관이자 박물관이며,
- 또한 델포이는 고대 그리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지이고 그래서 이곳은 신전을 중심으로 각 도시의 보고가 많이 건설되어, 그리스 전역의 각 도시국가에서 바친 수많은 조상이 진열되어 있는데 주요 소장유물은 낙소스 섬의 스핑크스, 옴파로스, 델로이의 마부 등이 소장되어 있음.

질의2) 델피 박물관의 주요 유물은 어느 시대이며 방문하는 관람객 추이와 현지에 박물관을 건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 명)

- 델피 박물관은 아폴론 신전과 주변의 각 국가들에서 바친 봉헌물 등의 유적으로 채워져 있음.
- 평일에도 관람인원은 많고 주말이면 항상 붐비고 특히, 7~8월의 휴가기간에는 음악과 고대 드라마 페스티벌까지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음.
- 그리스의 박물관은 현지성을 중시하여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물이 발견 또는 출토되는 현지에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질의3) 델피(델포이) 지역에 대한 설명과 신탁의 의미는

설 명)

- 델피(델포이)는 그리스의 영산 파르나소스산이 델피신전을 배산으로 완벽하게 에워싸고 있으며 또한 파르나소스 산은 고대 그리스에서

신들의 산 올림푸스 만큼이나 중요한 산으로 올림푸스 산이 신들의 놀이터였다면,

- 델피는 하늘의 계시를 신들을 통해 받는 자리로 즉 신탁의 산이고, 종교적이자 영적인 산이며 신탁은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맡겨놓은 뜻이라는 의미임.

□ 관련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 그리스 델피박물관 방문</td><td>▶ 델피박물관내 고대그리스 유물</td></tr>
<tr><td> </td><td> </td></tr>
<tr><td>▶ 델피박물관 고대그리스 유물</td><td>▶ 델피박물관 내부 전경</td></tr>
</table>

② 마테오라 수도원 [6. 24(토) 방문]

	14세기에 세워진 절벽 꼭대기의 수도원으로 그리스 정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
수도원 개 요	○ 수도원에 접근방법은 대부분 사다리를 이용하고, 각각의 수도원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저마다 재산과 농작물 등을 관리하고, 특히나 수도원을 통해 그리스의 전통이 오스만 제국 하에서도 보존됨. ○ 방문가능 수도원은 6개소 - 메갈로 메테오르 수도원(제일 높고 규모가 크고 1340년 건축) - 바를라암 수도원(15세기 건축) - 트리니티 수도원 (영화 007시리즈 촬영장소) - 성 니꼴라우스 아나파우사스 수도원(16세기 건축) - 로사노 수도원(16세기 건축, 다른 수도원에 비에 좀 낮음) - 성 스테파노 수녀원(수도원들 중 유일한 수녀원)

질의1) 마테오라 수도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마테오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설 명)

- 세계 복합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마테오라는 그리스어로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라는 뜻으로 깎아지른 듯 한 봉우리 위에 세워져 있어 하늘의 기둥이라고도 불림
- 한때 스물세 개의 수도원이 세워졌으나 불안정한 지반 때문에 18세기 말에 대부분 무너졌고 현재 여섯 개만이 남아 있으며 각 수도원 성당에 있는 오래된 벽화들이 있음.

질의2) 수도원을 방문하는데 복장은 자유로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무엇이며 또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기와 가치는

설 명)

- 수도원에 출입하기 위해선 여자들은 치마를 둘러야 함(수도원에 비치됨)
-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 놓은 걸 작품, 메테오라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들이 있어 성지순례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고
- 이러한 메테오라의 역사적 종교 건축물의 가치와 기묘한 자연적 가치로 판단, 지난 198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

□ 관련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 마테오라 수도원 전경</td><td>▶ 마테오라 수도원 현황 청취</td></tr>
<tr><td> </td><td> </td></tr>
<tr><td>▶ 마테오라 수도원 내부 탐방</td><td>▶ 마테오라 수도원 내부 탐방</td></tr>
</table>

③ 고린도 박물관 [6. 25(일) 방문]

	세계문화유산 그리스 고린도의 고대 로마시대 유적지 탐방
박물관 개 요	○ 박물관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가치 있는 유물을 많이 보존하고 있는데 모자이크 벽화도 남아 있고 특히, 유물을 실제로 보면 명암 표현이 정말 정교함. ○ 고린도 지역 및 박물관 특징 - 도리아식 기둥을 지키는 유적보호의 아폴론신전 - 유적지에서 나온 공예품을 소장한 박물관 - 로마시대 시민생활을 알 수 있는 아고라, 극장터 등 - 특히, 인근에는 현재에도 이용 중인 세계 3대 운하의 하나인 고린도 운하가 위치하고 있음.

질의1) 박물관에는 가치 있는 주요유물은 무엇이며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촬영범위는

설 명)

- 유적지에서 발굴된 도기, 스핑크스, 로마 황제 네로의 두상 등 많은 유물들이 3개의 전시실에 전시돼 있으며,
- 인류 최초의 모자이크인 디오니소스상,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상, 시저상 등 그리스 조각상의 이 박물관의 중요 소장품과
- 아스클레피오스의 방에는 귀, 음낭, 성기, 가슴 등의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치유의 신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 바쳐진 것이며
- 규정상 사진은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나 유물과 함께는 찍지 못함.

질의2) 박물관의 유적들은 어느 시대 유물이며 유물의 배치방법과 고대 무역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설 명)

- 유적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로마시대의 유품들로 코린토스식 도자기들은 기원전 7~8세기 때 만들어진 것이며
- 고린도는 고령토가 풍부해질 좋은 특산품 항아리가 유명하고 항아리엔 상상 속의 동물과 여러 동식물들이 그려져 있으며
- 이곳의 특산품인 청동 그릇과 항아리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이탈리아 등으로 수출하였음.

□ 관련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 그리스 고린도박물관 방문</td><td>▶ 고린도박물관 대표유물</td></tr>
<tr><td> </td><td> </td></tr>
<tr><td>▶ 고린도박물관 코린토스식 도자기</td><td>▶ 고린도박물관 아스클레피오스의 방</td></tr>
</table>

2 스위스 노인요양기관 [6. 26(월) 방문]

	스위스 취리히 노인요양기관 ALTERSHEIM + PFLEGEHEIM WEIHERMATT
• 주소 WEIHERMATT STR 44, 8902 URDORF • 전화 +044 735 5656 • 홈페이지 www.az-weihermatt.ch/xml_4/internet/de/intro.cfm • 담당자 MRS. Gjorgjieva	
요양기관 개 요	○ 2006년 6월2일 개관하였으며 특히, 스위스 취리히 요양기관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곳으로 최신식 시설로 - 카페. 세탁실. 운동 시설. 주방 시설. 개인 사물함. 최신식 목욕 욕조와 치과 치료 시설. 식당, 파티 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주요 시설 및 기능 - 시설은 5층 건물에 87개 침실과 질환이 있는 노인과 건강한 노인이 함께 기거 - 각각의 건강 상태에 맞춰 요리, 음악, 산책 등 맞춤형 생활요법을 처방 - 노인(88명)에 비해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각각 93명, 75명이고 20여평의 교회에서는 주2회 예배도 드림 - 건물 각 층의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어 노인들이 몇 층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에서 벨을 누르면 직원에게 전화기로 연결 가능 - 카페테리아는 주민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주요 질문·답변(설명)

질의1) 노인요양기관의 시설규모와 일반적인 운영현황은, 종사자 등의 입은 옷의 색상이 다른데 이유가 있는지

설 명)

- 이 노인요양시설은 1940년 설립하였으나 시설이 노후로 인해 지난 5년 전에 리모델링(건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음.
- 수용인원은 91명이며, 운영은 2개 그룹으로 신체가 자유로운 분과 기구 등 보조를 받으시는 분으로 나누어 운영
- 시설내 간호사의 옷은 흰색이고 나머지는 특별한 색상이 없음

질의2) 시설내 간호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곳 수용인원중 침해환자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근무자의 운영시스템은

설 명)

- 시설내 간호인력은 현재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자 운영시스템은 간호사, 간호보조원 등 3단계로 운영하되 간호사 1명은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용인원 91명 중 침해환자는 19명임.

질의3) 시설운영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필요재원 부담비율과 운영지침, 자체교육 등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 명)

- 시설내 수용인원에 대한 관리지침은 캔톤(연방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운영재원에 대한 부담비율은 캔톤 25%, 보조 25%, 자담 등 50% 정도이며
- 시설내 근무자를 위한 자체교육은 3년 과정이 있으며, 직업학교 교육은 3년, 일하면서 공부하는 과정 등 2개 과정 운영

질의4) 요양시설의 특수성을 감안, 노인개인의 묵상이라든가, 기도 등의 운영은

설 명)

- 기도(예배)는 신교, 구교 또는 신교로 한달에 2번 정도 운영하되 지역 목사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으며 개인적 묵상을 위한 공간으로 2층에 마련되어 있음.
- 또한 질병이나 노환으로 운명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인을 모시는 장소를 별도 운영하되 가족에게 빠른 시간에 인계하여 장례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질의5)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1일 부담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응급환자 발생시 대응은

설 명)

- 1일 이용비용은 175프랑(약 25만원) 이고 다음에 올 경우 20프랑 추가, 침해 등 중증인 경우 61프랑을 추가 부담하고 있으며 부담은 보험회사,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
- 응급상황 등을 대비하여 지역 의사와 협력체계 유지하되 수시 의사가 수용인원에 대한 건강 등 체크하고 있음

질의6) 시설내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운동은 어떻게 하며, 시설내 수용인원 중 개인별 재산이 있으신 분, 재산이 적으신 분 등이 있을 터인데 운영방법과 평균 연령은

설 명)

- 시설내 걷기 등 운동할 수 있도록 기구가 마련되어 있고 특히, 시설 측면에 조금한 정원을 조성하여 노인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안내 운영하고 있음.

- 이곳 시설내 노인들에게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평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서비스 옵션 추가는 해당 가족 중에서 추가부담하며, 연합정부에서 지원을 받음
- 이 지역 노인들의 평균 수명은 여자는 87세, 남자는 82세
- 스위스 국민들의 특징은 개인이 아끼고 절약하면 그 누군가가 혜택을 본다는 마음과 의식을 가지고 있음. 재정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경우 게마인드에서 지원하고 있음.

□ 관련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 스위스 노인요양기관 방문</td><td>▶ 노인요양기관 주임과의 질의응답</td></tr>
<tr><td> </td><td> </td></tr>
<tr><td>▶ 노인요양기관 최고령 어르신과 함께</td><td>▶ 노인요양기관 내부시설 견학</td></tr>
</table>

3 장애인 복지시설 [6. 27(화) 방문]

	이태리 밀라노 장애인 복지시설 dongnocchi
• 주소 Via Alfonso Capecelatro, 66, 20148 Milano • 전화 **+39 02 403081** • 홈페이지 **http://www.dongnocchi.it/servizi-per-il-paziente/servizi-per-disabili**	
기관 개요	○ 1945 년에 설립된 자선단체로 DON CARLO Gnocchi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고아들,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한 구호단체로 출발하여 활동이 널리 알려 지면서 지금의 복지 시설의 단체로 자리 잡게 됨. ○ 주요기능 - 재활 서비스,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 아이들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이이들 또는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아들 - 기계의 힘을 필요로 하는 환자, 심폐 호흡기 환자들의 사회 복귀 - 부상자들 말기암 환자 등을 위한 헬스케어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Don Gnocchi 재단은 5500 명의 직원들과 컨설턴트들로 이루어져 있음. - 헬스 케어와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영역에서도 활동

□ 주요 질문·답변(설명)

질의1) 장애인시설 설립과 그 동안 운영상황, 교육과정, 수용인원 등에 대한 설명

설 명)

- 본 시설은 1945년에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60~70년대에는 어린 아이(미취학 아동)들을 위주로 시설에 받아들여 운영하였음.
- 장애인시설에서 일하시던 분은 성직자(카돌릭)이고 교육은 손재주를 다루는 기술습득 교육을 주로 운영하여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 목표임.
- 카돌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2개인데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인원은 각각 200명

질의2)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한 시책과 재정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곳의 재정지원은

설 명)

- 장애인시설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곳은 정부의 지원이 아니며 개인단체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 그 이유는 1970년도에 장애인학생도 비장애학생과 같이 일반학교에 입학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개인 등이 재정을 부담

질의3) 수용인원의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연령, 숙식 등 생활관 운영 등에 대하여

설 명)

- 수용인원의 분류는 지적(두뇌가 있는) 능력이 없으나 손재주가 있는 학생, 말을 못하는 학생 등으로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 1994년도 까지는 7~11세, 18세까지 수용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11~15세(중2학년 / 우리나라 3학년)까지만 수용하여 운영
- 1970년까지는 숙식 등 생활관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정부에서 이러한 생활관 시설을 폐지하도록 권고하여 생활관은 없음

질의4) 수용되는 학생들은 11~15세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15세 이후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 명)

- 1970년도이후부터 이러한 기숙학교는 점차 감소되어 사라지고 1993년부터는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수용하게 되었고
- 다만, 장애학생들이 이러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며 오후에 2~3시간정도 이곳에 와서(월~금) 기술교육 등을 습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질의5)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별도 시설은 있는지, 보호해야 할 장애학생들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설 명)

- 이곳 밀라노에만 시각장애자 500여명정도가 시각장애 보호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있음
- 1993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원금이 80%수준이며 매년 감소 추세로 재정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 관련 사진

▶ 이태리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 이태리 장애인복지시설 브리핑

▶ 이태리 장애인복지시설 소개

▶ 이태리 장애인복지시설 질의응답

▶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기념품 전달

▶ 장애인복지시설 방문(내부)

4 토스카나 지역 문화 관광청 [6. 23(금) 방문]

	이태리 피렌체 토스카나 지역 문화 관광청 (MINISTERO DEI BENI E DELLE ATTIVITA' CULTURALI DE DEL TURISMO)
• 주소 VIA DEI CASTELLANI 3 • 전화 TEL : 39 055 271 898 31 • 홈페이지 www.toscana.beniculturali.it	
기관 개요	○ 토스카니 국립문화 유산과 문화 관광의 지역 사무국은 정부의 지역 사무소의 중심으로 일반 부서장 및 활동에 의한 능력과 실행 지침 사이의 연결을 제공 - 또한 지역과의 관계,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의 다른 기관을 처리하고, 특히 지방 자치단체의 자신의 능력을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 이익의 활동의 개발을 위한 협정 체결. ○ 보존 작업 - 2004년 1월 (22) (문화 유산과 풍경의 코드)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자신의 재산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보장 할 의무가 있음 - 특별한 상황에서 비용은 상품 및 문화 활동 및 관광 (제 32, 33)의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 될 수 있으며 - 보존 작업 (자발적 또는 부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 의해 발생. - 자발적 보존 작업(제31조)을 먼저 처리하고, 공공 기여를 허용하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교육감이 승인을 내려야 하는 조건임

□ 주요 질문·답변(설명)

질의1) 피렌체지역에 대한 지난 2015년 대비 지난해 관광객은

설 명)

- 인접국 및 미국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데 지난 해의 경우 관광객을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 미국 > 스페인 > 중국 등 순으로 대략 2%정도 증가하고 있음.

질의2) 관광관련 법에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고 하시는데 주요내용은

설 명)

- 관광법은 지난 1983년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2001년도 개정되어 관광에 대한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음
- 1983년도의 관광법은 호텔, 모텔 등의 정의와 기준제시 및 캠핑카의 조건 등이 명시되었고
- 2016년 새로이 개정된 법률에는(제86호) 호텔의 증·개축 등에 된 사항이 포함 되었음.

질의3) 피렌체 관광청의 명칭이 특별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 유는 무엇인지

설 명)

- 피렌체시의 관광청은 2013년부터 문화부와 관광부가 통합. 다만, 토스카나 주관광부서는 별도 운영(중앙정부 별도 운영)
- 2015년부터는 문화+관광+사회부 → 통합
- 피렌체시 인구는 371,596명으로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분
- 198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시내구역만 등재. 이곳은(브리핑 장소) 박물관 건물로 1568년 건축(관광부와 문화부 사용중)

질의4) 피렌체시의 관광객 유치전략 등이 있는지

설 명)

- 피렌체시에는 박물관 등이 많이 있어 이용의 편리를 위해 입장카드를 2011년 3월부터 발행, 카드 유효시간은 72시간으로 시간초과 시 사용할 수 없음
- 이태리의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난 2011년부터 호텔세 도입(1인당 3유로)
- 건축물들이 르레상스시대 건축물이 많은 점을 감안, 시골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관광 상품과 의상을 주제로 한 패션쇼도 매년 개최하고 있음
- 특히, 피렌체궁전에서 매년 2번 개최되는 패션쇼는 1년전부터 호텔 예약 등이 이루어져야 볼 수 있음.

질의5) 관광객에 대한 관광해설사 등에 대한 운영은

설 명)

- 이곳 피렌체시의 경우 여행사 등에서 지원하는 관광해설사는 운영하지 못하고 대신 현지(자국민 등)인 안내 및 해설하도록 협약으로 규정되어 있음

질의6) 우리나라도 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 차이점은, 이태리 도시에 진입하면 세금을 납부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설 명)

- 이곳의 체험마을은 시골에서 아침·점심·저녁을 제공하고(지역생산 농산물), 농사짓는 것을 보면서 힐링하는 형태
- 도시 진입시 통행세는 체크형태로 40유로 정도임(매년 증가)

□ 관련 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 토스카나 지역문화 관광청 방문</td><td>▶ 관광청에 대한 소개 등</td></tr>
<tr><td> </td><td> </td></tr>
<tr><td>▶ 토스카나 관광청 소개 및 질의응답</td><td>▶ 관광청 방문 기념품 전달</td></tr>
<tr><td> </td><td> </td></tr>
<tr><td>▶ 토스카나 관광청 시설물 등 탐방</td><td>▶ 토스카나 관광청 방문</td></tr>
</table>

5 세계문화유산 탐방

① 터기 성소피아 사원 [6. 22(목) 방문]

○ 성피아 사원은 비잔틴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532~537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세운 성당으로,

- 그리스 정교의 중심이며, 로마의 아치 기술과 동방의 돔형 건축 기술을 조합한 것이 특징
- 1453년 뒤부터는 회교 사원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박물관
- 설계자는 트랄레스의 안테미오스와 밀레토스의 이시도도스이며 지름 33미터, 높이 56미터의 돔을 중심으로 하여 내부는 모자이크와 대리석으로 덮여 있어 화려함.

▶ 터키 이스탄불 성소피아 방문

▶ 성소피아 사원 내부(톱카프궁전)

▶ 성소피아 사원 내부

▶ 이스탄불 성소피아 방문

②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6. 23(금) 방문]

○ 아크로폴리스는 고대 그리스가 세계에 남긴 가장 위대한 건축과 예술의 복합체임

- 조각가 페이디아스(Pheidias)는 뛰어난 영감을 발휘하여 이곳의 바위 언덕을 사상과 예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기념물로 탈바꿈
- 중요한 기념물은 익티노스가 세운 파르테논 신전, 에레크테이온신전과 므네시클레스가 설계한 기념 조각 형태의 아크로폴리스 신전 입구인 프로필라이온 그리고 작은 규모의 아테나 니케신전 등

▶ 그리스 아폴론 신전방문(1)

▶ 그리스 아폴론 신전방문(2)

▶ 아폴론 신전방문(세계문화유산 표지판)

▶ 아폴론 신전방문(아고라 극장)

③ 스위스 인터라켄 [6. 26(월) 방문]

○ 융프라운호에 가는 방법은 아크인터라켄 동역에서 출발하는 등산열차를 타고 라우터브루넨을 거쳐 클라이네 샤이덱까지 간 후 환승, 융프라우요흐에서 하차, 2시간이상 소요

- 융프라우는 4,158m, 열차가 운행하는 융프라우요흐 전망대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철도역이며, 높이가 자그마치 3,454m에 달하는 이곳까지 열차가 운행한 지도 100년 이상

▶ 스위스 융프라운 방문

▶ 융프라운 정상(얼음 궁전)- 교체

▶ 융프라운 지역 산촌마을

▶ 융프라운호 안내도

④ 로마 콜로세움 등 [6. 28(수)~ 29(목) 방문]

○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은 우피치는 이탈리아어로 '집무실'을 뜻하며 미술관 건물은 본래 피렌체 공화국의 행정국이었고 1560년경 초대 토스카나 대공인 메디치 가문의 코시모 1세가 피렌체의 행정·사법기관을 한곳에 모으기 위한 건물 건립 착공

○ 로마의 콜로세움은 70년경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건설이 시작, 대리석으로 건축된 이 커다란 원형 건물은 처음에는 플라비아누스 원형 극장(검투사 경기) 5만명 정도 수용

○ 뜨레비 분수는 트레비 분수는 세 갈래 길(Trevia)이 합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동전 던지는 장소로 전 세계 동전을 모두 볼 수 있음

▶ 피렌체 우피치 박물관 방문

▶ 피렌체 우피치 박물관 운영 청취

▶ 우피치 박물관 내부 관람

▶ 이태리 콜로세움 방문

Ⅳ 총평 · 향후계획

1 총 평

유럽의 선진 노인복지·장애인복지정책과 관광홍보 및 마케팅, 그리스 등 유네스코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지 견학을 통해 얻은 지식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관광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앞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하는 다짐의 계기였음.

□ 주요 우수운영사례 및 시사점

① 밀라노 장애인 복지시설 맞춤형 기능교육 운영

- 장애인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일반학교에 입학하도록 1970년 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 손재주가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해 오후에 기능교육 별도실시
- 재활기관의 운영비 중 대부분은 후원금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지원에 대부분 의존

⇨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장래 삶에 대한 의욕고취를 위해 정부 등과 정책적 협의 등을 통한 운영방안 검토 필요.

② 스위스 취리히 노인요양기관 근무자의 친절과 성실성

- 노인요양기관은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와 친절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스위스 국민들의 근면과 성실성, 노사간 상호존중 및 협력은 배울 점

※개인적 희생 및 양보는 타인을 위한 배려가 몸에 배임

③ 취리히 노인요양기관 통합운영

-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시설이 양로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치매노인센터 등 노인성질환의 종류나 질환수준에 따라 분리운영
- 이에 반에 이곳 인터라겐에 소재한 노인요양기관은 통합운영
- 우리나라 복지기관의 문제점은 각각 복지대상과 유형에 따라 기관을 설립 운영으로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전달체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분산되어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만족도가 낮아짐.

⇨ **복지선진국가의 운영방법을 우리나라의 시설운영에도 검토 필요**

④ 터키 블루모스크 문화재보존 방안

- 브루모스크 탐방 중 여기저기 파이고부서진 바닥이 보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 새롭게 보수공사 했을 것이지만 이곳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옛것을 있는 그대로 보존이용하면서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즘 우리나라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지 고민필요.**

⑤ 피렌체 토스카나 지역 문화 관광청의 관광객 유치전략

- 피렌체시에는 많은 박물관 등이 있어 이용의 편리를 위해 입장카드를 2011년 3월부터 발행, 카드 유효시간은 72시간
- 고대 르레상스시대 건축물이 많은 점을 감안, 의상을 주제로 한 패션쇼도 매년 개최(피렌체궁전에서 매년 2번 개최)

⇨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차별화된 관광객유치 전략에 대하여는 도정에 접목의 가능성도 검토 바람직.**

⑥ 그리스의 관광안내자 현지인 운영방안 모색

- 아테네 파르테논신전 등 탑방시 입장권 체크는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음에도 일자리를 유지를 위해 안내원 배치
- 또한 유럽에서는 현지인의 보호정책에 따라 현지인 가이드 동행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음.

⇨ **자국의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유럽의 경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부에 법제·개정 제안도 검토 바람직**

⑦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 지하철 유물전시

- 지하철 공사시 발굴한 유물을 다른 장소(수장고 등)아닌 지역 박물관이나 공공장소(지하철 등)에 전시보관하고 있는데
- 우리의 경우 국보급 유물들은 대부분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음
- 문화재는 발굴된 지역에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 가치를 높 일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바,

⇨ **충남도의 국내, 국외 반출 문화재들이 우리 지역에 보존되길 기대**

⑧ 고속도로 주변 유휴지 등을 활용한 해바라기 등 재배

- 그리스와 이태리의 경우 고속도로 주변들에는 해바라기 등의 꽃이 식재되어 여행객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자연풍경이 조화

⇨ **도로변, 천변 등의 자연환경 조성은 사람과 자연의 조화가치 창출**

⑨ 이스탄불 최대 전통시장 바자르의 새로운 변신

- 세계에서 크고 오래된 시장중의 하나로 5천여개 상점 입주
- 보르포로스 해협을 두고 아시아와 유럽이 맞닿은 위치의 두 개 대륙에 거처 있는 시장

- 시장은 이국적이면서도 다체로운 제품 등이 많으면서 상품가격이 저렴한 점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됨

⇨ 현대적이면서도 정감이 있는 시장조성, 상품가격에 대한 신뢰성은 도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전략에 도움이 될 것임.

□ 공무국외출장 추진 및 아쉬운 점

[추진배경]

○ 복지 및 관광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10월경부터 의원공무국외출장계획 준비

○ 도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심의위원에서 2.21(화) 심의한 결과 국·도정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출장시기가 부적절 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고 의원출장이 외유성이라는 여론의 비난도 받았음

○ 그러나 의원국외출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부득이하게 6월중 재추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소 아쉬운 부분 등이 발견됨.

[아쉬운 점]

- 당초 추진계획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여 기관방문지 섭외 및 자료수집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 보완발전 과제

○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사전 학습 및 비교 시설 견학 필요

- 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한 학습, 현장방문 통한 견학

○ 방문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사전 상호 정보교류 필요

2 향후계획

○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 국외출장 결과 집행부 통보, 의회 홈페이지 및 행정포탈 게시 등

Ⅴ 출장을 마치며

지중해 연안 3개국과 스위스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정 희

도의원들의 국외출장은 도의회 활동의 선진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도민들의 가치 증진이라는 목적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민들 사이에 국외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선진국들의 앞선 정책을 탐구하고, 그 정책을 우리 도에 실현시키려는 도의원들의 노력은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터키, 그리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에 출장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이들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을 현실감 있게 살펴보고, 최신 선진국들의 복지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등 복지정책에 관한 탐색의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관광에 있어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이들 4개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실태를 파악하고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탐색함으로써 우수 시책 및 사례를 발굴하여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복지증진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2개조로 나누고, 제1조는 관광에 관한 분야를, 제2조는 복지에 관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조사하기로 하였다.

우리 일행이 처음 도착한 도시는 터키의 이스탄불이었다. 터키는 금년 4월 16일 집권당인 정의개발당과 극우민족주의 정당인 민족주의자 운동당이 발의한 터키 헌법의 18개 개정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터키 전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약 51%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됨으로써, 94년 만에 국부 아타튀르크가 확립한 의원 내각제 체제가 막을 내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대통령제로 전환된 나라다.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으며, 서구사회는 이를 곱게 보지 않고 있다. 나아가 IS의 공격에 따른 국가적 불안은 동로마 제국의 찬란했던 문화유산에 빛을 가리게 했다. 국가적 안정 없는 문화유산은 얼마나 무의미한가? 국가든 지자체든 그 체제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터키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번영기는 아마도 기원후 330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비잔티온을 로마 제국의 새 수도로 삼은 후 비잔티움 제국(동로마 제국)의 수도로 번영했던 때였을 것 같다. 역사의 영고성쇠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터키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일행에게 이 여정의 첫출발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시작이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국가는 그리스다. 서양 철학이 시작된 나라, 인류의 정신세계에 너무도 큰 영향을 준 그리스. 그렇지만 통치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가부도라고 하는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다. 발이 닿는 곳이 그리스신화의 현장이요, 눈길이 머무는 곳이 서양철학의 근원이었다. 고대 인류문명의 발상지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서도 그리스가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도 풍부했다. 그런 그리스가 정치의 잘못으로 인해 세계인들이 걱정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만 하는 나라 중의 하나가 바로 그곳이다.

그리스에서의 인류문화유산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일행에게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갖게 하는 계기였다. 고대에서 부터 그리스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 아크로 폴리스. 올해 11월 초에 평창 올림픽 성화를 채화해서 전수식을 하게되는 현장이다.

마라톤 우승자에게 수여했던 월계관을 근대올림픽 경기장에서 써보고 사진을 찍은 추억은, 마치 내가 올림픽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기쁨을 갖게 해 줬다. 특히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 지하철 공사 시 발굴한 유물을 지하철 역사 내에 직접 전시보관 하고 있었는데, 발굴된 장소를 박물관으로 특색 있으면서도 관광객을 배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1호인 파르테논 신전과 에레크레온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 철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사도바울이 처음 설교한 곳으로 알려진 아레오파고스, 공중도시 마테오라 수도원과 고린도 박물관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올림푸스 만큼이나 중요하게 하늘의 계시를 받는 신탁의 산 델피 등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문화유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음에 새삼 감탄하였다.

그 다음 도착한 국가가 스위스다. 정밀 기계산업과 다국적 기업으로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는 정치인이 경제인의 후견인 역할을 하여 세계무역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모든 지원을 한다고 들었다.

다음날 아침 취리히에 도착하여 노인요양기관을 방문하였다.
노년을 즐기는 현지 노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국가적 차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건물 각 층 마다 색깔을 달리하여 노인들이 쉽게 몇 층인지 알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주민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테리아를 개방하여 노인들이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 점이 인상 깊었다.

깔끔한 실내 환경과 더불어 근무자들의 친절과 성실성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흐뭇하게 만들었다. 시설 내 최고령 노인의 방에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며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시절에 본인의 작품인 연필 인물화로 조그마하게 그린 가족의 모습 그림을 걸어 놓은 광경이었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운영자는 강조하였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는 격언은 인권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말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재산의 다과와 관계없이, 오직 국가가 돌보아야 하는 한 분의 노인으로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스위스의 노력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 정신은 꼭 배워야 한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하여 인식하는 방식이 크게 달랐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도와야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향이다. 그러나 밀라노에서 목격한 광경은,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장애인 복지의 중점을 둔다는 점이었다.

다름을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철학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이라 하더라도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학생과 똑같이 일반학교에 입학하게 하여 교육한다는 것이다. 아예 법으로도 입학에 차별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새롭게 느낀 점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점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로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나아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려면,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국가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다.

우리 출장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탈리아 피렌체 토스카나 지역 문화관광청이었다.
이곳이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점을 알게 해 주는 하나의 증거로 관광청 청사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기업 메세나로 르네상스 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메디치가문의 저택이었던 실제 박물관 건물을 지역 문화관광청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청에 방문한다는 점도 관광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광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었다.

우리 일행은 관광청 관계자의 배려 덕분에 비공개가 원칙인 메디치가문의 방을 관람할 수 있었고, 그곳에 진열 된 메디치가문의 유물을 조우하면서 더 깊은 감동을 가질 수 있었다. 한국에서 온 우리에게 피렌체의 뿌리 깊은 역사와 정신을 알게 해 주기 위해 관광청이 기울여준 노력에 감사한다.

피렌체시에서는 많은 박물관 이용의 편리를 위해 입장카드를 발급하여 72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호텔세(1인당 3유로)를 도입하여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르네상스시대 건축물이 많은 관계로 시골체험관광상품 등을 내놓아 많은 인기를 끈다고 한다. 유럽 역사의 심장이었던 로마에서의 견학도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었다.

우리 충남도는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북부 벨트 개발을 계기로 공업중심 산업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때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일행들은 관광산업을 통한 우리 도의 부흥을 모색하려 노력하였다. 우리의 발길이 닿았던 나라들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의 번영기를 누린 나라들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부족할 뿐이다.
그러나 기회는 부족함에서 시작된다. 우리에게 없는 유산을 찾아내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 우리가 풍부히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것인가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한 가지 꼭 첨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도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대해 아직은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도의원들이 선진국의 앞선 정책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은, 우리 도가 추진하여야 하는 미래 전략적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해 준다면 더욱 좋겠다. 이번 출장을 통해서도 우리 일행은 정말 소중한 경험을 갖고 돌아왔다. 충남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당초 올 12월에 예정된 대선 일정이 탄핵정국과 맞물려 갑작스럽게 5월 대선으로 앞당겨지면서 작년도에 이미 연수계획을 수립하였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4월 연수가 6월로 늦춰지면서 해외연수계획 전체에 다소의 혼선과 착오가 발생하였지만 의원님들을 비롯한 계획된 인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위원장으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문화복지위원회 유럽 공무국외출장 후기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김 연

6/22 터키(성소피아 사원, 블루모스크, 오벨리스크, 그랜드바자르)

- 테러가 잦은 나라 터키, 그래서 모든 관광지 입구에서는 가방검색까지 꼼꼼하게 한다. 성소피아 성당은 지금은 성당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사원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원의 기능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예전의 성당 모습을 되찾기 위해 공사가 한창이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으며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포근하면서도 맑은 호수 같은 잔잔함이 어수선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게 한다.
- 블루모스크를 돌아보는 중 여기저기 파이고 부서진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한국 같았으면 벌써 문화재 보수 차원에서 새롭게 바닥 공사를 했겠지만 여기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존(?) 하고 있다. 물론 대리석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그래도 옛것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이용하면서 문화유산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즘 우리나라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6/23 그리스 아테네(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신전, 에릭시오신전, 델포이 박물관, 아폴로 신전, 옴파로스 등)

- 아크로폴리스에서는 아크로폴리스가 '언덕 위 도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7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현지인의 보호 정책에 따라 현지인 가이드 동행을 필수로 하고 있다.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지 가이드를 동행하는 것은 자국의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특히 입구에서 입장권 체크가 모두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안내원을 배치해 두는데 이런 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규정이 없다. 입법추진을 위해 문광부에 제안해야겠다.
- 델포이 박물관과 아폴로 신전을 보러 가는 길에 우리나라에서 흥행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를 돌아보았다. 드라마 또는 영화 로케이션으로 너무 멋진 곳이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위원회에서는 로케이션 DB작업을 하고 있는데 충남의 좋은 장소들이 많이 발굴되고 잘 정리되어 전국의 영화 관계자들에게 공유됨으로서 우리나라 영상산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6/24 그리스 마테오라 수도원

- '공중도시' 도시를 뜻하는 마테오라는 1988년에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됐다. 수백 미터의 절벽위에 세워진 수도원들은 매우 웅장하고 인상적이 곳이다. 마테오라는 비잔틴 시대 그리스정교회 수도사들이 수행을 하던 수도원이다. 지금은 6개의 수도원이 남아 있다. 당시에 수도사들은 되도록 높은 곳에 올라 수행을 하는 것이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아찔해 보이는 높은 절벽의 갈라진 바위틈에서 수련을 했다고 했다. 지금은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수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도원 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 이곳이 더 인상적인 이유는 마을 집들의 지붕색깔 때문이다. 마테오라 밑에 마을 집들은 지붕이 붉은색인 것이 특징인데 이 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붉은색 지붕을 올려야만 건축 허가가 난다고 한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곳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핀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환경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6/25 고린도(아폴로 신전, 박물관, 아고라, 고린도 운하, 국회의 사당, 올림픽스타디움, 산타그마 광장 등)

- '아고라' 는 광장 또는 시장을 뜻하며, 아크로폴리스가 주로 귀족들이 모여서 정보 공유와 토론을 했던 곳인 반면, 이곳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토론을 하던 장소라고 한다.

- 고린도 박물관에는 그 지역에서 나온 유물들이 모두 전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한 국보급 유물들은 대부분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반출된 문화재는 본국 또는 발굴된 지역에 보존하는 것이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의견이 확산됨에 따라 문화재 반환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충남도의 국내, 국외 반출 문화재의 환수 활동이 활발해져서 많은 충남의 문화재들이 우리 지역에서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6/26 스위스 취히리(융프라우, 노인복지시설 방문)

- 스위스는 총면적이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총인구는 750만 명 정도로 작은 나라다. 그러나 복잡한 민족 구성과 불리한 지형 조건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전 세계 최상위권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정밀기계 산업으로 유명한 시계 산업은 스위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어디를 가든 관광지에서는 시계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제품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시계는 고가에 판매된다. 브랜드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는 스위스 국민들의 서비스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다.
- 융프라우(Jungfrau)는 높이 4,158m의 산봉우리로 라우터부르넨 계곡에 우뚝 솟아 있으며, 해양도시인 인터라겐에서 남동쪽으로 18km 떨어져 있는 베른알프스 산맥에 속하는 경치가 아름다운 산이다. 산악열차를 타고 융프라우로 인터러겐 빌더스빌역을 출발한 기차는 라우터브루넨 역(796m)과 클라이네샤이덱 역(2,061m)을 거쳐 유럽에서 가장 높은 융프라우요흐 역(3,454m)에 도착한다. 융프라우요흐에서 다시 바위를 뚫은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수백 미터에 이르는 만년설로 뒤덮인 얼음동굴니 있는데 그 얼음동굴을 가로질러 밖으로 나가면 푸른 하늘과 하얀 설경이 무한히 펼쳐지는 융푸라우가 보인다. 아마도 이 절경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악열차에서 본 마을 풍경은 내가 본 최고의 아름다운 경치로 기억될 것이다.

- 오늘날 관광객들은 만년설로 뒤덮인 산꼭대기까지 편안하게 앉아서 산에 올라가 구경할 수 있지만, 사실 알프스 산악열차는 부존자원이 없는 스위스 인들이 험준한 산과 만년설을 유일한 관광자원으로 삼고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친 눈물겨운 현장이라고 한다.
- 스위스인들은 1896년부터 1912년까지 16년 동안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바위를 깨고 터널을 뚫는 난공사 끝에 산악열차 궤도를 놓았다고 한다. 시계와 정밀기계 등 세계 최우수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스위스 인들의 끈기와 창의력을 엿보게 한다.
- 인터라켄에 소재한 양로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80여명의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건강한 노인에서부터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들까지 모두 하나의 건물에서 공간만 분리해서 생활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종이접기, 실뜨개질, 과자나 빵굽기, 화장 기술 익히기 등, 특히 동양에서 주로 실행하는 정서프로그램 중 하나인 '만다라' 그리기를 서양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신기하기도 했다.
- 스위스 노인복지 시설이 우리나라와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시설이 양로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치매노인센터 등 노인성 질환의 종류나 질환 수준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에 비해 여기는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우리나라 복지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각각의 복지대상과 유형에 따라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증가해도 전달체계가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분산되다 보니 복지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스위스와 같은 복지선진국가의 운영방법을 우리나라에도 잘 적용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6/27 이탈리아 밀라노(장애인 시설 방문 / 두오모성당, 스칼라 극장, 엠마누엘2세 거리)

- 이탈리아에서 방문한 장애인 시설은 직업재활 기능을 하고 있었다. 1974년 시작된 장애인 통합교육 정책으로 이곳에 다니던 많은 학생들은 일반 학교로 통합되어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장애인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이곳에 와서 기술을 익히고 졸업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운영은 후원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 직업재활 훈련 기관이 많이 있다. 이탈리아와 다른 점은 이탈리아 재활기관의 운영비 중 대부분은 후원금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원금으로 운영비 대부분을 충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장애인 사회복귀 또는 사회통합에 대해 전 국민적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폭이 더 넓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두오모 성당의 웅장함과 섬세함에 놀랐다. 가끔 외국여행에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곳에도 외국인을 타겟으로 은근슬쩍 돈을 빼앗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둘기 먹이를 억지로 손위에 쥐어주고 비둘기를 유인한 후 돈을 달라고 한다. 비둘기를 이용한 호객행위(?), 웃음도 나오고 재미도 있어서 2유로 정도는 줄 수도 있었지만 주지 않았다. 너무했나 싶기도 했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국격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했다. 혹시나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

6/28 이탈리아 피렌체(우피치미술관, 시노리아광장, 미켈란젤로 언덕)

- 이탈리아 피렌체는 세계 최고의 르네상스 미술관인 우피치미술관이 있는 곳이다. 레오나르도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조각상과 그림이 전시되어 있고, 라파엘로의 그림도 전시되어 있다. 1484년에 만들어진 보티첼리 최고의 명작인 ‘비너스의 탄생’과 ‘봄’이 전시된 곳이기도 하다. 원근법을 가장 잘 살렸다고 알려진 레오나르도다빈치의 ‘수태고지’ 작품도 있었다. 미켈란젤로의 유일한 유화인 ‘똔도 도니, 성 가족’, 베네치아 화풍의 대표적인 화가 티치아노가 그린 최초의 누드 작품인 ‘우르비노의 비너스’ 등이 있다.

- 다비드상이 있는 미켈란젤로 언덕에 가면 피렌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지붕이 대부분 붉은색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노리아 관장에는 조각상이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광장 주변의 자그마한 카페에서 간단한 식사나 간식 등을 사먹을 수가 있다.

6/29 이탈리아 로마(퀴리날레, 스페인광장, 포로 로마노, 콜로세움 등)

- 피렌체에서 로마로 이동 중 '로마의 휴일' 영화를 관람했다. '로마의 휴일' 은 사랑스럽고 낭만적인 영화의 대명사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직도 설레게 만드는 마법 같은 작품이다. 영화 로마의 휴일 와일러 감독은 로마 로케이션 촬영으로 이 마력적인 스토리를 로마의 멋진 풍광으로 한층 고조시켰다. 이후 헵번이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스페인광장과 카페 그레코, 진실의 입, 콜로세움 주변의 거리와 첩보원들을 따돌리기 위해 뛰어들었던 테베레강 등은 지금도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되었다. 영화 한편이 로마 도시 전체를 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든 셈이다.
- 로마 시내 구경은 길이 좁은 관계로 소형 승용차를 이용해 관람을 했다. 그래서 시내 곳곳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관광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들이 우리의 문화재와 더불어 문화까지도 자세히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문화복지위원회 공무 국외(유럽)출장을 마치며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장 송 기 력

각 나라의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관광인프라 운영방법, 선진국의 복지정책 방향을 등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낌으로 향후 도정에 반영하고자 출장길에 올랐다. 도착 첫날은 터키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사원을 둘러보았다. 전 국민의 98%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사원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허름하고 관리 또한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서 엄숙함과 웅장함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이렇게 큰 건물을 사람이 일일이 망치로 두둘겨 완성 시켰다는 것과 이렇게 거대한 둠 성당을 기둥하나 없이 지탱하게 설계한 성당을 보면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지금은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랜 내전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둘째 날, 그리스 아테네 델포이박물관을 방문하였다. 델포이 박물관은 고대 그리스 신전으로 14개의 전시실에 조각 장식의 일부와 일상생활에 숭배 의식에 사용한 집기들이 있었다, 특이한 것은 델포이의 마부 전시실의 청동 조각상을 보면서 인체묘사를 정교하게 했는지 참으로 신기하고 경이로 왔다.

셋째 날, 마데오라 수도원을 방문 했다, 아찔한 만큼이나 높은 기암절벽위에 마테오라 수도원은 나도 모르게 숨을 죽여야 할 만큼 신성한 느낌이 드는 곳이다. 그리스 정교에 대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돌산 산위에 수도원을 지어 세상과 고립된 곳에 지내는 수도생들의 과거 모습을 잃지 않은 듯 보였다.

11세기부터 그리스 정교회 수도사들의 은둔처로 이용되다가 14세기경에 정식 건물들이 건축되었는데 전체 24개의 수도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5개의 수도원과 1개의 수녀원이 사용되고 있었고, 1988년 유네스코 복합문화유산으로 등록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저곳에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생활속에서 종교적 믿음과 자신의 수양을 쌓기 위해 정진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대단해 보였고, 지금도 원형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였다.

파르테논 신전은 산성비로 부식되어 보수공사 중이지만 역시 세계문화유산 1위라는 이름에 걸 맞는 멋진 모습이었다, 문화유산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

넷째 날, 고린도 박물관과 고린도 운하를 방문하였다. 고린도는 옛 그리스 폴리스 중에 하나로 아테네 스파르타와 견줄 정도로 번성한 도시 국가 였다고 한다, 고린도 박물관에는 고린도 지방 일대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고린도 운하는 규모가 참 대단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운하와 함께 세계 3대 운하의 하나인 고린도 운하는 1893년 준공되어 높이 80m, 두 절벽 사이는 폭 24m, 운하길이 6.3㎞라 했다. 양쪽은 수직으로 절벽처럼 절개하고, 중간 바위를 폭파시켜 조각난 바위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기술이다.

다섯째 날 스위스 취리히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하였다. 이곳에는 91명의 노인이 기거를 하고 있었으며, 건강한 노인과 질환이 있는 노인이 병동만 구분 함께 기거하고 있으며, 그중 치매환자는 19명이 요양하고 있었다. 건물의 각 층마다 색깔을 달리해 환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매환자는 반드시 간호사가 24시간 보호를 해야 하고, 진료는 우리나라와 같이 촉탁의사를 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벨을 누르면 직원에게 연결되도록 조치되어 있었다.

특이한 것은 휴게실과 식당이 설치되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배치가 잘 되어 있었으며, 지역주민도 카페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곳은 화장(30%)문화보다는 아직도 매장(70%)문화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묘지는 주 정부 카토니아에서 관리를 하고 20~30년 후에 묘지를 없애다 하였음. 요양시설에서도 죽음이 무섭지 않고 행복한 삶의 연장이라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시설 내 사망시 2~3일 견딜 수 있는 냉방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이곳 시설 내 어르신들은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었으며, 추가 서비스 요청 시 개인부담 원칙이라 하였다. “본인이 아끼고 절약하여 그 누군가에 혜택을 준다” 는 마음과 의식을 가진 스위스 국민성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여섯째 날 이탈리아 밀라노의 장애인 시설 방문으로,
이탈리아 장애인 정책은 학교와 시설이 공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 시설에는 주로 11세~ 15세 뇌질환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었다. 밀라노에는 학교(특수학급)와 시설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방과 후 실습 등은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밀라노의 장애인 시설은 우리나라처럼 우선 보호차원이 아닌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시설이 연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아닌 방과 후에 장애인들에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문화된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 국가지원금은 80%이고,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학교와 시설이 공존하는 차별화된 장애인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짐.

일곱째 날 이탈리아 피렌체 토스카나 문화관광청 방문
피렌체시의 관광청은 2013년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문화부와 관광부가 통합하여 운영되어오다 2015년 문화관광 사회부가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본 건물은 1568년 건립된 박물관 건물로 현재는 관광부와 문화부, 사회부가 사용하고 있었다. 눈여겨볼 사항은 피랜체시 지역내 문화유산과 연계한 입장카드를 만들어 72시간 내 사용하게 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었으며, 건물이 문화유산임을 감안 시설관리인이 직접 해설사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지역경제와 관광객의 편의도모와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 전략은 우리도에서도 정책으로 시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시사점>

그리스의 문화유산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은 지역 내 박물관을 만들어 진품을 전시케 하여 관광자원이 되고, 깨지고 부러진 유물도 발굴된 모습 그대로 간직하여 관람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척박한 기후여건에도 수리시설이 잘되었고, 올리브나무를 심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방문지 호텔이나 화장실 등 물 소비 절약을 실천하고 있었으며, 한방울의 물도 소중함을 느끼도록 먹는물과 공중화장실 사용시 금전을 지불케 하여 관리하고 있었다.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건물보다는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스위스 피랜체시 공무원들의 친절함과 열정적인 업무추진을 보면서 반성의 계기도 되었고, 고령화 정책에 있어서도 관 주도형이 아닌 민간과 협치를 이루는 고령화 정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밀라노의 장애인 시설처럼 보호차원이 아닌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협업하는 차별화된 정책 전환과교육에 있어서는 주입식이 아닌 능력에 따라 모두가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 됨.

<맺음말>

관광이 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떠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발굴과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도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지 지원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복지정책도 미래 지향적 방향 전환 발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좀 더 촘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